

# 사이버공간은 21세기의 禪房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



**‘매트릭스  
사이버스페이스와 禪’**  
오윤희 지음  
호미 / 9천5백원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 선불교가 보이고, 선불교를 보면 영화 매트릭스가 보인다.”  
저자가 이 책의 머리말에서 한 말이다. 저자는 영화 ‘매트릭스’를 선적인 아이디어가 넘치는 영화라고 보고 있다. 영화를 만든 워쇼스키 형제의 의도나 성향에 관계없이, ‘매트릭스’에서 선기(禪機)를 읽고 선미(禪味)를 느낀다는 것이다.

## 네트워크 통해 불교핵심 연기법 파악 대중문화세대 선불교 인도 입문서

그래서 이 책은 ‘매트릭스’의 장면들과 옛 선사들의 어록을 나란히 대비시키면서 영화 ‘매트릭스’를 관통하고 있는 선적인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되짚어 나간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영화의 장면들은 선사들의 어록과 그 난해한 암호를 해독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거꾸로 선사들의 선문답 또한 영화의 장면을 이해하는 교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암호해독 기능은 그 둘의 부딪힘에서 새로운 재미를 불러 일으킨다.  
사실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영화 ‘매트릭스’를 새로운 재미로 바라보게 된다. 게다가 난해하지만 하던 선사들의 어록이 무척 신선하고 흥미로워질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손에 잡힐 듯이 쉽게 읽힌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인 영화 ‘매트릭스’와 나란히 놓고 본 것에서부터 그렇듯이 이 책에서 ‘선(禪)’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새로운 뿐만

아니라 발랄하다 못해 ‘발칙’하기까지 하다. 그것은 ‘매트릭스 1·2편’과 ‘애니메트릭스’의 장면들을 텍스트로 동원하고, 사이버 스페이스의 선구자들과 히피의 사이키델릭을 계승한 반문화 그룹들의 주장을 총 동원해 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짧고 간명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써나간 글의 투가 우선 불순하다 싶을 만큼 경쾌하고 발랄한데다, 권위를 걸어버린 글맛이 그 자체로 도발적이어서 커다란 쾌감을 안겨준다.  
하지만 이 책이 무엇보다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오늘의 ‘뚝뚝한’ 젊은이들이 네트워크로 군집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새로운 선의 가능성을 본다는 결론 때문이다. 저자는 사이버공간을 잇는 네트워크에서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의 비유를 읽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공간 속의 반문화운동과 선불교 사이의 긴밀한 유사성을 발견한다. 그래서

저자는 “사이버 공간의 이야기야말로 21세기의 선방”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속에서 네트워크가 가져온 혁명적 성향이 바로 선불교의 사고방식과 그대로 접점을 이루는 동시에 영화 ‘매트릭스’가 선적일 수 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등에서 일했던 승려 출신의 저자는 여기에 실린 글이 영화 ‘매트릭스’에 대한 일종의 감상문일 뿐이라고 겸손해 하지만, 이 책은 영화나 만화 또는 컴퓨터 게임같은 대중문화의 세계를 받은 세대를 선불교로 이끄는 훌륭한 입문서이다. 아울러 선의 깨달음에 대한 저자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 주는 책이기도 하다. 매트릭스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모두 가상이고 환상이고 공(空)할 뿐이니 모두 버리고 비우고 뒤집어 얹음으로써 이 ‘발한 그릇의 마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런 선의 깨달음을, 소수 엘리트 중심의 깨달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함께 묶고 깨닫는 길이 사이버 공간의 네트워크에서 무르익어 있다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이 책은 작가 정찬주가 백제 성왕과 왕인을 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일본에서는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밝힌 역사 소설이다.  
이 한 작품을 위해 정씨는 5년에 걸쳐 국내의 백제 관련 유적지는 물론 일본을 수차례 방문했으며, 수많은 일본 사학계의 권위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소설로는 특이하게도 현장 취재를 다니며 작가가 직접 찍은 사진 화보까지도 실어 놓았다. 여기에 정씨 특유의 정교한 필력이 가미돼 백제의 역사를 되짚어 내고 있다.  
소설의 골자는 일본인들이 시조처럼 만드는 쇼토쿠태자상이라 알려져 해마다 봄·가을 수많은 일본인이 참배하는 호류지 동전의 구세관음상이 사실은 백제의 성왕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백제의 성왕과 함께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었다는 왕인의 이야기가 소설의 다른 축을 차지하고 있다.



**‘대 백제왕 1,2’**  
정찬주 지음  
아래아 / 각 8천원



## 日 구세관음상 = 백제 聖王像

### 日의 백제관련역사 왜곡 소설형식 입증

소설은 시나리오 작가인 화자가 대하 은사의 권유로 백제 성왕에 얽힌 비밀을 찾아 나서서 데서부터 시작한다. 자료 조사 끝에 화자는 1993

년 부여농산리에서 출토된 금동대왕로가 6세기 백제 성왕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제기라고 밝힌다. 또 일본인들이 쇼토쿠(聖德)태자상이라고

만는 호류지(法隆寺) 비불(秘佛)이 성왕을 그린 것임도 입증해낸다.  
“금동대왕로가 성왕의 명복을 빈 절인 능사(陵寺) 터에서 발견된 데다 성왕의 딸이 사리갑을 시주했고, 단 한 점밖에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성왕을 위한 제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류지에 봉안된 구세관음상(救世觀音像)을 성왕의 아들인 위덕왕이 부왕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등신 불로 추정된 것은 일본 고서 <성에 초(聖聖抄)>의 ‘위덕왕이 부왕의 형상을 연모해 만든 존상이 곧 구세관음상이다. 또한 이것은 상공태자의 전신이다’는 구절에 따른 것이다.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논문 한편이 이번 장자의 제기가 됐다. 정씨의 예리하고 끈질긴 취재 덕분에 소설이리라 보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김주일 기자

## ‘인지심리학’

이정모 지음  
아카넷 / 3만원



## 인간심리·정보체계 과학적 분석

요즘 대학에서는 여러 학문들이 혼합된(blended) 학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영역이 대학원 협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대학원 협동과정들을 살펴보면, 메카트로닉스협동과정, 정보통신협동과정, 나노시스템협동과정, 기록관리협동과정, 여성학협동과정, 예술문화영상매체협동과정, 환경시스템협동과정, 멀티미디어협동과정, 생물정보협동과정, 과학협동과정, 지형정보협동과정, 의공학협동과정, 분체공학협동과정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기존의 학문들을 엮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혼합학문들이라 할 수 있다.  
협동과정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대학에서 배웠던 특정학문의 기초지식들을 다른 학문들과 어떻게 혼합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물론, 자신이 알고있던 지식을 다른 학문과 어떻게 연계시키는데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내가 생각할 때, 이러한 협동과정들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협동과정이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제 협동과정은 문과와 이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새로운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전 인지과학협동과정에 다니는 후배를 만났다. <인지심리학>을 읽고 있었다. 인지심리학은 인지과학협동과정의 새로운 교과과정인 아닌 심리학의 한 분야이다.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체계 및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볼려는 노력을 표명한 학문이다.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해석과 공학학적해석 사이의 재미있는 이론편을 제공해 준 이 책의 목차요약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인지심리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인지심리학의 특성과 연구영역을 설명한다. ‘제2장 과학적 심리학 이전의 심리학’에서는 고대그리스에서 독일 합리론까지의 심리학의 발전과정을 설명한다. ‘제3장 과학적 심리학의 형성과 변화’에서는 경험과학으로서의 현대심리학, 형상학적 접근의 대두 및 사고심리학, 행동주의 심리학, 형태주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제4장 마음과 기계의 연결: 연구영역·방법·특성·발전과정 등 설명’

### 연구영역·방법·특성·발전과정 등 설명

서라고 해석된다. 자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학문의 과도한 발달로 인해 내용 없는 애플리케이션 위주의 콘텐츠 부족현상을 발생시켰다. 협동과정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이공계열 학과들이 기초학문관련 학과와 교과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우수한 콘텐츠 개발에 많은 도움을 얻고자 하는 노력중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아이덴티티(identity)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나의 경우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인지과학협동과정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수료했다. 내가 석사전공을 할 때 인지과학 협동과정은 철학, 심리학, 언어학 등의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여 통계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의 이·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과정이었다. 과정을 겪을수록 학생들은 두 학문사이의 거리감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중간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발생하였다. 고등학교때의 문과와 이과의 이분법적 학문의 분리가 대학원에 와서야 전공에 대한 아이덴티티 혼란을 발생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제4장 마음과 기계의 연결: 연구영역·방법·특성·발전과정 등 설명’  
튜링기계 이론의 형상배경’에서는 튜링의 기계론을 분석하고 있다. ‘제5장 인지주의 형상배경: 정보처리 패러다임의 형성’에서는 정보이론, 사이버네틱스, 언어학, 컴퓨터과학의 영향에 따른 인지심리학의 출현에 대해 말한다.  
‘인지과학’을 배울 때 ‘인지/인공지능(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농담을 자주하곤 했다. 현대는 많은 학문들이 생겨나고, 합성되고, 분리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학문의 변화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들을 접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학문을 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점은 앞에서 말했던 자신의 영역에 대한 정체성 확보라고 생각한다. 어느 학문을 하든 자신이 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영역에 대한 확고한 전문성을 갖춘다면 새로운 학문의 도전에 대한 훌륭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인간의 심리를 문과와 이과의 측면에서 같이 이해해 보려는 사람들의 정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박민욱 / 경성대 디지털 애니메이션과 교수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정보체계 및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려는 인지심리학의 개념과 방법의 지적 발달사, 연구 결과들을 밝혀 놓은 책이다.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건강도지키는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물에도 최고!

신비로 가득 찬 북한산 금강염주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건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금강염주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 분
- ❖재정이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인분을 찾고 계신분
- ❖법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분
- ❖투병중인 분
- ❖구직을 원하시는 분
-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 ❖고시준비 하시는 분

부처님게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게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 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 됩니다

월성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니 기도 장인하시는 스님 및 발자님께 주문 판매 합니다.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문 생명을 알리자면 우편(카드)으로 전국 어디나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중구 관동동 177 대원 B/D 406호

핫~이슈! 세계최초 24시간 대화하는 영어선생

영어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

한번 말하는 영어가 백번 듣는 영어보다 낫다!

로봇이 사장에서 스님과 대화하는 뉴지니컴

스님, 불자님 영어회화 이제 걱정 끝!

위드스에서는 세계최초 음성 인식 기술을 응용한 영어로 말하는 대화하는 로봇을 개발 시판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 인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 불교문화를 보고 배우려고 몰려오고 있으며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사찰내 스님은 물론 학생 및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필수어입니다. 스님께서 영어를 배우고자 해도 지리적, 환경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영어를 배우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학원에서는 직접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현실입니다. 영어 학습법으로 첫째 ‘청취력’ 둘째 ‘따라하기’ 셋째 ‘대화하기’ 학습입니다. 그러나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학습법이라고는 거의 듣기 위주 혹은 듣고 그대로 따라하기 위주의 C.D, 테이프 등 모든 것을 동원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가장 중요한 ‘말하기’를 하지 못하면서 반쪽 공부에 만족해야 했는데 영어로봇 뉴지니컴의 보급으로 1:1방향 대화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어에 기초가 전혀 없어도 뉴지니컴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침만 바꾸면 누구나도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으며 전면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어 한글자막을 자체히 보여줘 영어의 뜻을 이해를 도우며 언어 감각과 함께 문자 감각까지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뉴지니컴은 명령에 따라 학습하며 1단계 Listening

모델리스-닝 모드는 귀 풀기 과정으로 영어를 많이 들어 자기만의 데이터로 전환하여 ‘청취력’이 향상되며 2단계 model리스-닝 모드는 입을 열어주는 과정으로 영어를 한문장씩 듣고 따라하며 스님께서 발음이 틀리고 화법이 틀리면 뉴지니컴은 발음 수정해주며 잘하면 엑셀런트하며 칭찬합니다. 3단계(Dialogue model)다이얼-로그는 스님께서 뉴지니컴과 한문장씩 1:1로 자신있게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기타 영어 학습 기능모드가 다양하게 많은 뉴지니컴은 영어선생이자 미국인 친구와 같다.

이제 말하는 로봇 뉴지니컴의 출시로 스님께서 3개월이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 할 수 있습니다. 사찰에 하나만 있으면 외국연수를 방불케 하는 생생한 영어학습을 실천할 수 있으며 모든 스님께서 재미있게 영어를 마스터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외국인 포교의 세상이 열립니다. 신청하면 전국 어디든 받으실 수 있으며 카드보로도 할 수 있습니다.

LCD형 영어로봇 '뉴지니컴'

몸체 전면에 설치된 LCD창을 통해 애니메이션 동영상 영·한글 자막을 자체히 보여줘 영어의 빠른 이해를 돕는다.

학습문의 전화 (02)3210~3178